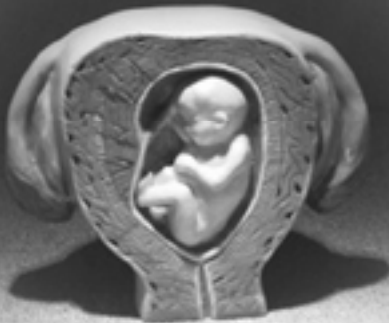


태아의 텔레파시

| 시치마 마코토 | 이현숙 옮김 |

태아는 모든 경험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쉽게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도 있고,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편집자 주).



탄생 트라우마(Birth trauma)

레이크 박사나 그로프 박사는 자궁 안이나 탄생의 체험이 어떻게 타인과의 접촉 방식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일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 스위스의 화학자가 개발한 약품의 도움을 받았다. 약품명은 리제르그산(酸) 디에틸아미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른바 각성제(LSD)이다.

LSD를 소량 복용하면 정신 각성이 일어난다. 보통은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이미지나 꿈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 이미지, 무의식 안에 감추어진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LSD는 1960년대에 저항 문화운동을 하면서 유입되었으나 현재는 환각제로 분류되어 그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용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압박을 해방시키거나 심리적 혼란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복용하기 전보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책임감을 더 갖게 해주는 약이기도 하다. 레이크 박사나 그로프 박사는 그 LSD를 써서 사람의 정신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이다.

레이크 박사는 1966년에 출판한 「임상신학(clinical theology)」에서 LSD는 억압을 선택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며 그 결과 의식에 되돌아오는 정신외상(精神外傷, trauma)의 요소는 연상과 수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정신외상에 대해 연구해 보면 탄생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날 때 조성된 정신외상을 탄생 트라우마(birth trauma)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레이크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에 답할 수가 없으며 결혼을 겁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는 일에 소

정신외상에 대해 연구해 보면 탄생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날 때 조성된
정신외상을 탄생 트라우마(birth trauma)라고 한다.

원하고 사람을 만나서 내 생각이 통하는 순간 나는 도망가고 맙니다.”

그 환자는 레이크 박사의 LSD 요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다음의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나는 키가 작은 꼬마이고, 조그맣고 보잘 것이 없으며 우글쭈글하고, 키는 수 센티미터 주그러진 아기입니다. 입안은 말라 있고…. 나의 손은 마치 아기의 손처럼 작기만 합니다. 나는 태아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입에서 먹을 것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다리는 풍선처럼 커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시려고 하고 있지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페니스뿐. 소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손이 닿으면 부드럽고 연한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데 말이지요…. 앗, 이번에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침대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내가 무서워하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다른 방에 있어요. 나는 고독에 떨고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페니스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와서 내가 왜 히스테리가 되어 있었는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시하고 사소한 일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엄마 안에 넣고 있습니다. 나는 자궁 안에 있습니다. 입 안의 메마른, 먹을 것,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궁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무(無)에서 와서 집안에 있습니다.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므로 도량을 따라 내려 왔습니다... 그 도량의 안쪽에서... 나의 입은 온통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입에서 무엇인가가 꺼내졌습니다. 나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씻겨지고, 찰싹 손바닥으로 맞고...”

레이크 박사는 당시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그 환자는 긴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태아의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마치 산도(産道)를 빠져 나오는 아기처럼 머리를 움직이고 몸을 비틀며 신음 소리를 내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숨쉬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성문(좌우 성대 사이에 있는 숨구멍)에 경련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로부터 1주일 뒤에 있던 LSD 치료에서 그 환자는 또 다시 호흡 곤란에 빠졌다. 그는 그것이 태어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겪으면서 처절한 고독감에 휩싸여 “저는 지금 비로소 탄생 때의 내 자신이 된 것입니다.”라고 중얼거린 것이다.

그 후 레이크 박사는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자궁 안에서의 생활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탄생 이전의 고투는 어른이 되었을 때 정서적, 지각적인 변형(일그러짐)으로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발표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출생 체험

심리학자 레슬리 레크론은 무의식 수준의 정보를 판독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예스’, ‘노’, ‘답하고 싶지 않다.’를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관념운동신호라고 부르며 최면요법에도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샌프란시스코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데이비드 치크는 병의 원인이 되는 출생 때나 태아 시기의 사건을 규명했다.

우선 치크가 치료했던 대부분의 위장병 환자들은 모유 수유를 받지 못했거나 엄마가 모유 주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또 천식, 폐기종, 호흡 향진 등의 호흡기 문제는 엄마의 전신 마취 또는 분만 때의 호흡 곤란이나 혼수상태 등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편두통의 원인이 겹자분만¹⁾에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또 불임증, 불감증, 월경통, 월경곤란증, 습관성 유산, 조산, 임신중독증 등의 부인병은 부모가 여아를 원하지 않았던 결과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다. 부모가 “이번에는 남자 아이의 이름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라든지 “여자 아이는 필요치 않았는데”라는 말이 각인(刻印)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치크는 추측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한 부모도 있겠지만 탄생의 기억에 대한 대처법도 있다. 그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1) 난산인 경우 겹자(forceps)라는 기구를 사용해 태아의 머리를 감싸서 인위적으로 분만시키는 방법으로 산모의 산도 손상을 일으키므로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태아의 놀라운 능력

태아는 텔레파시(telepathy) 또는 정신감응력을 갖추고 있다. 앞서 소개한 ‘아버지의 귀가를 알리는 태아’의 이야기도 텔레파시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니, 설마’ 하고 생각할지라도 텔레파시가 있다고 믿고 그것이 유아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시치다 차일드 아카데미에서는 태아한테 이야기를 하면 역산(逆産)을 고칠 수가 있으며, 과속아가 된 태아한테 제왕절개를 하고 싶지 않으니 편안하게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대로 되기도 하고, “이 날짜에 태어나요.”라고 소원을 하니 그 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물론 태아는 아직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하는 일은 알 수 있다. 시치다 차일드 아카데미의 어린이한테 태아 때의 일을 회상시키면 어머니의 배 안에 TV가 있어서 밖이 보였다는 아이도 있다.

사이타마 현(縣) 도코로자와 시(市)에 살고 있는 와다 구니코의 아들 마사토는 “어머니의 배 안에는 창이 있어서 밖이 보였다.”고 한다. 결국 태내 기억은 이미지의 기억이다.

필자(시치다)에게는 매일 차일드 아카데미의 성과 보고서 어머니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오는데 그 중 한 통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보낸 사람은 후큐시마 현에 사는 M이고 딸은 당시 3세 3개월인 나오코였다.

“갑작스럽게 서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치다 선생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전날에 딸에게 ‘계란과 병아리’(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21일간을 설명한 그림책)라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는데, 그 중에서 인간도, 개도, 병아리도 처음에는 물고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림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도 이런 모양이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이하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단다, 기억이 나니?”

“응, 기억나.”

“뭔가 보이는 게 있었니?”

“응, 전차와 지하도.”

“또 뭐가 있었니?”

“아빠가 보였어.”

사실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지하도를 지나 전차를 타고 통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주 제 배에 귀를 대고 아직도 이름이 없는 아기한테 “나나야.” 하고 태명을 붙여 말을 걸곤 했습니다.

갑자기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나도 그만 갓 태어난 딸의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딸이 “앗, 나나야.”라고 크고 푹푹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나는 놀라서 “뭐라고?” 하며 되물었더니 딸은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알아” 하고 다시 고쳐 말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정말 많은 것이군요.(이하 생략)”

나에게 이러한 종류의 서신은 여러 통이 오기 때문에 나는 아기한테 텔레파시(telepathy)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아직도 보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과학자 중에는 텔레파시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NASA(미국 우주항공국)의 에임스 연구소에서 우주 공간이 인간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미쓰이 이시네 선생은 신경학과 의사이다. 미쓰이 선생은 인간의 뇌에는 언제나 미약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는 다이슨 방정식(Dyson equation)을 발견한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 프리먼 J. 다이슨은 다쓰무라 히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지구 교향곡 제3번> 안에서 “앞으로 1세기 안에 통신 기술을 응용한 텔레파시 교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갓난아기가 태어 때부터 이미 기억을 갖고 있으며 몸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려하고, 때로는 텔레파시를 통해 외계를 헤아려 알고 있다면 태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태교의 효과

올바르게 태교를 실시한 아이는 태교를 하지 않은 아이에 비해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1. 마음이 편안하게 자라나므로 떼를 쓰거나 밤중에 울거나 하지 않는다.
2. 신경 세포가 잘 발달하므로 성장이 빠르다.
3. 호흡력이 강하고 건강하다.

4. 말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
5. 언제나 방긋방긋 웃고 사교적이다(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있다).
6. 우뇌가 활성화되므로 학습 능력이 높다.

왜 이러한 효과가 나오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1. 상상해 보자.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전달을 하고 싶다면 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치되는 공포를 피하려고 계속 울게 될 것이다. 또한 태아는 이미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면 그것에 답하려고 한다. 더욱이 자신이 시도한 의사소통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얻으면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그 답이 있다는 것에 전폭적인 신뢰를 하므로 불필요한 때에는 굳이 떠들 필요가 없어진다.

2. 왜 신경세포가 잘 발달하고, 아기의 뇌가 잘 발달하는가? 아기의 뇌는 미성숙하고 신경세포의 연결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각각의 신경 세포가 차츰 발달해 나간다. 이때 자극의 횟수나 종류가 풍부하면 신경 세포가 여기저기로 이어져서 복잡하게 연결되므로 성능이 좋은 뇌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수초(髓鞘)²⁾라는 칼집이 신경 세포를 덮으므로 신경 세포의 연결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수초가 없는 태아의 뇌 회로를 치밀하게 만들려면 3세 정도까지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극을 적절하게 하면 2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3. 태교를 제대로 한 어머니는 출산할 때 폭력적인 출산을 하지 않도록


2) 신경의 축삭을 견고하게 감싸고 절연물질로 여러 겹의 세포막 층으로 이루어지며 주성분은 지방으로 되어 있다. (고도홍 저(2007) [언어기관의 해부와 생리] 참조.)

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호흡력이 강하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최초의 호흡은 아마도 가슴이 타는 듯한 체험일 것이다. 출산 직전까지 양수가 가득 찼던 폐에 처음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래된 서양의학에서 행하는 마취 때문에 자기 힘만으로 호흡이 되지 않거나, 호흡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탯줄이 잘려나간 아기가 정신 외상을 입어 천식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전하게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초의 호흡이 잘되면 호흡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져 힘 있고 건강한 호흡을 하는 어린이가 된다.

4. ‘말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은 태내에서 이미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5. ‘언제나 방긋방긋 웃고 사교적이다.’도 태어날 때의 체험이 ‘공포의 체험’이 아닌 아이는 버스 트라우마가 최소화되어 세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책의 공저자인 쓰나부치는 벨기에의 수중분만을 취재할 때 한 소년을 만났다. 포네트 박사의 병원에서 왈츠를 지도하는 이지벨 가브리엘의 아들인 ‘이리아’이다. 이리아는 다섯 살이었는데 처음 만난 쓰나부치에게 미소지으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쓰나부치는 영어로 말하고 그 아이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려고 웃으면서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취했던 것이다. 물론 이리아는 수중분만으로 태어났다. 이리아한테 이방인인 쓰나부치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 것은 버스 트라우마가 최소화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끝) 

- 이 글은 ‘태내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시치다 마코토** | 시치다 마코토는 저명한 교육학 박사이자 시치다 차일드아카데미 교장이다. 현재 자녀교육 방법론 개발과 교육 컨설팅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교실이 전국적으로 400여 개가 넘는다. 또한 미국, 한국, 대만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교육에 열성인 대한민국에는 현재 100여 곳 이상이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아기, 유아의 지력과 재능을 향상시키는 책』 『아이의 지력을 높여주는 300가지 지혜』 『아버지의 7가지 행동』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쓰나부치 요우지**(綱湖陽二) | 1961년생,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 졸업 후, (주)덴쓰 입사. 5년 후 퇴사 하고 작가가 된다. 테마는 자연, 환경, 정신세계 문장을 씬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힐링·라이팅' 강사.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태내기억 - 버스트라우마의 비밀

시치다 마코토 · 쓰나부치 요우지 공저 | 이현숙 역 |

한국문화사 펴 | 12,000원



현대 산과술의 지나친 폭력성 때문에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정신외상 '버스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책. 『태내기억: 버스트라우마의 비밀』에서 저자는 태내의 기억과 정신적인 손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의학적인 근거로 태아뇌가 형성되는 분만 17주 이후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엄마 자궁에서 지내는 동안 엄마의 정서상태가 심박수라는 진동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